

보 도 해 명 자 료 (‘12. 1. 31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서울경제 “해외 자원개발 뿌리가 흔들린다”,
“개발역량 결음마...” 보도에 대한 해명

1. 기사요지 (‘12.1.31. 서울경제)

- ① 최근 “LG상사의 카자흐스탄 블록8유전광구와 대우인터내셔널의 우즈베키스탄 3536광구 탐사가 연이어 중지”되는 등 “탐사단계서 중단사례가 속출”
- ② 정부의 성급한 자원개발 성과 부풀리기도 국내 자원개발 사업의 기반을 흔들는 한 요인으로 지목
 - 업계 관계자는 “국내 업체가 어느지역의 탐사권만 확보해도 정부는 가채매장량을 발표하는데...”라며 정부의 부풀리기 행정을 비난
- ③ 정유업체와 종합상사 등 국내 업체들이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10여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성과 부재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입장

- ① 현재 LG상사는 동 광구 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광구 관리하고 있음
 - 탐사단계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 유망성이 부족하여 중단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더 많은 손실을 줄이기 위한 판단에서 기인
- ② 정부는 탐사단계에서 가채매장량을 발표한 적이 없으며 단지 탐사자원량을 발표하고 매장량은 시추 후 상업성이 확보된 광구에 대해 발표하고 있음

- ③ 우리 민간업체의 해외자원개발 노력으로 여러 성과를 내고 있음
 - SK이노베이션은 지난 ‘11.7월, 탐사에서 성공한 브라질 광구를 24억불에 매각하는 등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석유개발사업에서 영업이익 1조원을 넘김
 - 대우인터내셔널은 미얀마 서부 해상 가스전 탐사/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대형 가스전 발견에 성공한 바 있음
 - 발견한 가스 가채매장량이 4.5Tcf(7.7억배럴)로 국내업체가 발견한 해외 유/가스전 중 최대 규모
 - 또한 LG 상사는 러시아, 호주 등에서 석탄 사업 투자를 통해 약 4억6천만불 회수
 - STX는 캐나다, 미국 유전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음
- ④ 한편 실제 석유가스 해외자원개발 진행사업수는 ‘01년 대비 3.2배 증가(56개→180개)하였으며
 - 운영권 확보 사업수는 4.2배 증가(14개→59개)하여 단순 지분 참여에서 벗어나 해외자원개발사업 운영 역량이 강화되고 있음

☞ 자료문의 : 지경부 자원개발전략과 전민영 과장(02-2110-5530)
지경부 자원개발전략과 김종연 사무관(02-2110-5432)